

‘종전 선언’ 김정일 메시지 있나 주목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29일 오전 10시40분께 숙소인 서울 광장동 웨라톤 위커힐 호텔에 도착, 남한 방문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2000년 9월 김용순 당시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서울 방문은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의 공식화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부장이 숙소에 도착한 후인 오전 11시16분께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일행”이 서울 방문을 위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오전 9시5분께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이관세 통일부 차관과 서훈 국정원 3차장의 영접을 받고 간단한 출입경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에서는 이재정 장관과 김만복 원장이 현관에서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김양건 부장을 맞았다.

김 부장은 활짝 웃는 밝은 표정으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며 두 사람과 악수를 한 뒤 객실로 이동하면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이후 안부를 서로 주고받았다.

김 부장은 이날 12시 김만복 원장 주최 오찬에 참석할 때 이어 오후 2시부터 인연 송도 신도시를 방문한 뒤 호텔로 돌아와 이재정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어 밤 9시부터 이재정 장관과 김 부장은 김 부장 숙소에서 회담을 갖고 ‘2007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과 향후 남북관



29일 북한 노동당 김양건(오른쪽) 통일전선부장이 인천경제구역 비전21 홍보관을 방문, 안상수 인천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양건 서울 도착... 오늘 노대통령과 면담 10·4 정상회담 합의 이행 점검... 산업시찰도

계의 진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장은 방문 이틀째인 30일 오전 거제도 대우조선소를 시찰한 뒤 부산으로 옮겨 부산시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부산세관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어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포항제철 등 남한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도 시찰하고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만복 국정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후

김양건 부장 등 북측 대표단을 면담하기로 했다.

김 부장은 이어 평양 귀환에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과 공식 회담을 갖고 오후 4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이용해 돌아간다.

정부 관계자는 “김 부장이 방문기간 송도 신도시와 조선단지 등 남쪽의 다양한 산업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향후 이어질 남북 경제협력 사안의

밀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건 부장의 이번 남행에는 통일전선부의 최승철 부부장, 원동연 강수민 실장, 리현 참사와 2명의 실무자가 동행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부장 일행은 남북출입사무소 귀빈실에서 이관세 통일부차관과 10분 정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이 “일찍 출발하셨나”고 묻자 김 부장은 “오전 7시쯤 출발했는데 마중나와 줘서 반갑다”며 “서울에는 첫눈이 언제 왔느냐, 날씨가 춥다고 해 걱정했는데 많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내달 8일 6자 수석회의 준비중”

힐 방향 “내달 북에 전달할 부시 대통령 친서 없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9일 다음달 8일 6자 수석대표 회담 개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핵 신고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달 초 북핵에 앞서 한국을 찾은 힐 차관보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생각에 북한이 신고 목록을 의장국인 중국에 주면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다음달 8일 6자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핵프로그램 신고가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뒤 “신고는 핵심적인 작업이자 중요한 이정표(milestone)”라고 언급한 뒤 신고 문제와 대북 테러지원금 지정 해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다음달 3~5일 방북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협의할 이슈에 대해 “신고 문제를 포함, 연말까지 북,미가 서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힐 차관보는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왔느냐는 물음에 “어떤 편지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북때 지난 6월 자신의 제1차 방북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에서 항공권을 이용해 방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군용기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낮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담화에 참석한 뒤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천영우 한남도평화교섭본부장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캐나다 의회,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日 정부 공식 사과·배상·교과서 명시 촉구

캐나다 연방하원은 28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결의안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20만명 이상의 아시아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는 한편 일본 교과서에 이 같은 전쟁범죄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미국과 네덜란드

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거론, 결의안을 채택한 세번째 국가가 됐다.

중국계인 신민당(NDP)의 올리비아 초우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은 하원 표결 전날인 27일 오후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자유, 신민, 퀘벡블록 등 여야 4당 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에게 “이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할 만큼 했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각 의원들에게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일본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캐나다 하원을 통과한 데는 캐나다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됐다.

지난 7월말 미 하원에 결의안이 상정됐을 때부터 교민들은 정선대문제 대책회의를 구성, 기자회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의안 채택 여론화에 나섰다.

장정돌(84) 할머니 등 아시아 위안부 피해여성 4명이 참여한 공청회는 1천여명이 지켜봤으며, 캐나다 최대 일간지 토론토 스타를 비롯한 캐나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토론토=연합뉴스

한나라당 ‘北風 주의보!’

北 김양건 들연 방문에 과거 대선 패배 악몽 떠올려

한나라당은 29일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전격적인 서울 방문에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이뤄진 그의 방한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대선 패배의 악몽을 떠올리며 대선 막판에 또다시 ‘북풍(北風)’이 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김학원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작년과 달리 북한의 유엔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한 배경에 어떤 공공이 숨어 있

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일찌감치 한 바 있다”면서 “전직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서 한나라당 집권시 전경위험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국정원장 초청으로 서울에 내려오는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함참 대선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에 일련의 사태들이 위협스러운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 둔다”면서 “만일 범여권이 옛날에 썼던 북풍을 또 사용하

려는 의도라면 역사가 응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을 방문해 대통령까지 만난다고 한다”면서 “통일부는 방한목적에 대해 남북정상 선언을 중간평가하고 경험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런 일이라면 굳이 대남 총책이 방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공공기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북풍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만의 하나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엉뚱한 일을 벌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북풍은 이미 실패들도 흔들지 못하는 미풍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알아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 연합군, 한·아프간 협력공사 현장 오폭

아프간 인부만 14명 사망

미국 주도의 연합군 공습으로 도로공사 중이던 인부 14명이 사망한 건널목 회사 ‘아메리카(Amerifa)’는 한국과 아프가니스탄간의 협력회사라고 이 회사의 사드 누를라 잘릴리 사장이 28일 밝혔다.

잘릴리 사장은 이날 아프간 북동부 누리스탄주에서 도로공사 도중 연합군의 오폭으로 노동자 14명이 숨진 아메리카사는 한국 회사가 관리와 설계를 담당하는 ‘협력사(partner)’이지만 한국인들의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잘릴리 사장은 한국 회사 ‘지오파

이트(Geophite)’가 아메리카사의 관리와 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국인 관리자 5명은 카불에 주재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누리스탄주 도로공사 현장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AFP통신은 잘릴리 사장의 말을 인용, 아메리카사가 한국과 아프간 합작회사라고 보도했으나 한국인들이 자사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숨진 아메리카사는 한국 회사와 관리와 설계를 협력사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잘릴리 사장은 설명했다.

아메리카사는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180km 떨어진 험난한 지형에서 약 1년에 걸쳐 60km 길이의 도로 건설공



아프간 북동부 누리스탄주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의 공습으로 도로공사 중이던 인부 14명 사망

사를 벌여왔다”고 잘릴리 사장은 말한 것으로 AFP는 전했다. 잘릴리 사장은 연합군이 “헬기와 제트기들이 누리스탄주 서부의 우리 공사 캠프를 폭격해 도로공사 노동자 14명이 사망했다”며 “사망 인부들은 모두 아프간인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영아캠프' (Younger Camp) featuring a group of graduates in caps and gowns. The ad includes text about the camp'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ww.youngercamp.com'.